

## 영한 번역에서 부사어의 위치: 구조적 중의성을 피하는 번역 전략

원 은 하  
(신구대)

### 1. 서론

이 논문은 영한 번역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부사어(adverbials) 구조를 출현 위치 및 어순의 관점에서 연구한다. 부사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 아니면서 서술어나 문장, 혹은 다른 수식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어구를 두루 이르는 말이다. 부사어는 두 언어 모두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며, 다른 문장 성분 에 비해 구조상의 제약이 적은 편이다. 특히 한국어는 부사격 조사나 부사형 접미사 등을 통해 부사어의 생성이 용이하므로 영한 번역에서 부사어가 활발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원문의 부사어, 혹은 다른 문장 성분을 부사어로 번역하는 과정은 일견 어휘 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영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정반대로 구성되며, 수식어인 부사의 출현위치도 피수식어를 기준으로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영한 번역 과정에서 부사어가 증가할 가능성은 큰데 부

사어의 위치 제약은 좀 더 엄격해지므로, 부사어의 위치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번역문의 구문 분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두 언어의 부사어의 특성을 위치 및 어순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부사어의 위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본다. 또한 영한 번역에서 부사어의 실제 활용 경향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부사어 위치가 부적절하게 구성된 예문들을 중심으로 구조적 중의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논의는 영한번역에서의 한국어 문장 구성 방식에 집중하므로 영어의 구조보다는 한국어 번역문의 구조를 주로 다룬다.

## 2. 영어와 한국어의 부사어

### 2.1 두 언어의 부사어 위치

부사어는 문장의 필수 성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영어에서는 부사, 전치사구, 부사절을, 한국어에서는 부사, 부사구, 후치사구, 부사절이 속한다<sup>1)</sup>. 부사어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어서 문장 구성에서 부차적으로 취급되며 의미나 형태, 기능이 다양하여 속성을 파악하기가 제법 까다로운 성분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주어나 서술어 등 다른 문장 성분들과 비교하여 그 위치가 자유롭고 동일한 절에서 여러 번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겉으로 보기에 부사어의 분포 양상이 무질서하게 보이는 까닭은 부사어의 의미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수식대상도 다양하기 때문인 것 같다. 영어와 한국어의 부사어 위치를 비교해보면 각 언어의 언어유형상의 특징 및 부사어의 의미가 부사어의 출현 위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부사어가 문장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치는 크게 문두, 문중, 문미의 세 가지다. 문두 위치는 문장의 첫머리, 문중은 주어와 서술어의 사이, 문미는 문

1) 부사어(adverbials)에 관한 명칭은 대체로 서정수(2006)의 논의를 따른다. 그에 따르면, 부사어라 할 수 있는 한국어 구조는 부사, “매우 잘”처럼 부사를 핵어로 하는 부사구, ‘명사+후치사(혹은 부사격 조사)’로 구성된 후치사구, 서술어에 부사형 어미가 붙은 부사절이 있다.

장의 끝머리를 각각 가리킨다. 영어와 한국어는 모두 부사어가 자연스럽게 문두에 올 수 있다. “By then, many changes had already taken place”, “집에 손님이 와 계시다” 같은 문장에서처럼, 문두에 오는 부사어는 주로 시공간적 배경 설정이나 주제 흐름과 관련된다(Quirk 1985: 491).

반면 부사어가 문중과 문미의 자리에 분포하는 양상은 두 언어에서 차이를 보인다. 영어 부사어가 문중 보다 문미 자리를 선호하는 반면(Quirk 1985: 501) 한국어는 부사어가 문미에 올 수 없으므로 문중에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언어의 언어 유형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SVO 어순인 영어는 구문생성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루어지고(right-branching) SOV 어순인 한국어는 왼쪽 방향으로(left-branching) 이루어진다. 영어는 명사, 동사 등 각 구문의 중심어, 즉 핵어가 먼저 생성된 후 부가어나 보충어들이 오른쪽에 연결되는 구성이 일반적이므로 영어의 수식어는 핵어의 오른쪽으로 나열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한국어는 부가어나 보충어가 왼편에 먼저 생성되고 구문의 가장 마지막에 핵어가 등장한다. 이렇게 가장 나중에 생성되는 언어를 핵말 언어(head-final language)라 하는데 한국어는 이 어순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진다. 따라서 수식어인 부사어는 그 의미나 개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서술어의 앞에 오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문중의 위치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세밀하게는 목적어와 부사어와의 어순 관계를 따져볼 수 있다. 송경안과 이기갑(2008)에 의하면, 동사구 어순이 VO 유형인 영어는 부사어가 목적어의 뒤에 오는 일이 일반적이다. 서술어의 앞자리인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쓰이는 일은 있어도 서술어와 목적어 사이에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한국어는 OV 유형으로 부사어는 서술어의 왼편인 목적어 앞자리와 뒷자리에 위치한다. 그러나 목적어 앞자리가 더 일반적인 위치이다. 송경안 외(2008)는 O와 V가 결속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올 수 있는 부사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영어는 이런 예를 거의 허용하지 않으며 한국어는 횡수나 정도의 의미가 있는 부사만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어 부사어는 목적어 뒤에 오는 것보다 앞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위치라고 설명한다.

부사어의 어순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전통적으로는 부사어의 의미나 부사어의 기능에 따라 분류되어 왔고 어순은 부차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이다. 어순의 관점에서 본 부사어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 (1) a. 과연 새 정치를 부르짖는 이들이 서민의 고통을 이해한단 말인가?  
 b. 칠순이 다 되신 어머니가 정성껏 막내 아들의 밥상을 차렸다.  
 c. 영식이 아버지가 노름으로 땅을 많이 팔아먹었다.  
 d. 우리 집 강아지는 손을 안 준다.

성기철(1992: 127-36)은 부사어를 어순의 제약 정도에 따라 문 자유어순 부사어, 서술부 자유어순 부사어, 서술어 인접 부사어로 분류한다. (1a)의 밑줄친 부사어가 문 자유어순 부사어에 해당되며 주로 시간이나 장소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일부 양태 부사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부사어의 특징은 자리 바꿈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1a)는 “새 정치를 부르짖는 이들이 과연 서민의 고통을 이해한단 말인가?”, “새 정치를 부르짖는 이들이 서민의 고통을 과연 이해한단 말인가?”가 전부 허용되고 자연스럽다. (1b-c)와 같은 서술부 자유어순 부사어는 문두에는 올 수 없고 목적어의 앞과 뒤에만 사용되는데, (1b)는 “칠순이 다 되신 어머니가 막내 아들의 밥상을 정성껏 차렸다”라고 쓸 수 있다. 한편 서술부 자유어순 부사어라도 (1c) 같은 부사어는 목적어 앞자리보다는 목적어 뒤를 더 선호하므로 “영식이 아버지가 많이 땅을 팔아먹었다”고 하면 어딘가 어색하다. 서술어 인접 부사어는 부정형의 부사로서 (1d)처럼 서술어의 바로 앞자리에만 올 수 있으며 “우리 집 강아지는 안 손을 준다”라고 쓰면 비문이 된다.

서정수(2006: 769-76)는 부사어가 피수식어의 바로 앞 자리에 오는 것이 기본 자리라고 하면서, 수식 대상의 범주에 따라 부사어를 자유 부사어와 제약 부사어로 분류하여 어순을 설명하고 있다. 자유부사어는 피수식어인 서술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사어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문장 부사나 시간, 양태 부사어들이 속하고 어순이 자유로운 편이다. (1a)가 이 자유 부사어에 속한다. 반면 제약 부사어는 서술어의 종류에 따른 사용상의 제약이 있는 어구를 말한다. 예를 들어 (1b)의 “정성껏”은 형용사형 용언과는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 부사어이다. 한편 임흥빈(2007: 104)은 기본 어순의 관점에서 부사어의 자리를 설명한다. 그 설명을 위의 예문에 적용하면 (1a)는 문장부사, (1b)는 동사구부사, (1c)는 동사부사로 분류되며 문장부사와 동사구부사는 각각 문두, 목적어

앞에 오는 일이 일반적이거나 다른 위치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반면, 동사부사는 위치의 이동이 어렵다.

부사어는 여러 개가 동시에 사용되는 일이 잦다. 이 때 부사어들 사이의 어순은 두 언어에서 반대로 나타난다. 송경안 외(2008)는 영어 부사어의 어순을 “빈도-V-O-정도-방향-출처-(횟수1)-도구-공동-횟수(2)-장소-시간”으로, 한국어 부사어의 어순을 “시간-빈도-장소-공동-출처-도구-방향-O-횟수-정도-V”로 정리한다. 그러면서 부사어의 순서는 부사와 동사 사이의 의미 결속성이 강한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도나 방향 등 서술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부사어가 서술어에 인접한 반면 문장 전체의 명제와 관련이 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부사어는 서술어와의 거리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다.

영어와 한국어의 부사어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문두에 위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치 거울처럼 정반대의 어순으로 구성된다. 또한 수식 범위에 따라 위치가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피수식어와 가능한 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은 서로 같다. 특히 영어의 문미에 오는 부사어들은 번역 과정에서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위치상의 조정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 2.2 부사어의 위치 제약

부사어의 위치는 피수식어와의 의미 결속성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우선 부사어는 위치에 따라 수식 범위가 달라지거나 혹은 중의적 해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2) a. She herself interviewed the student I had turned down with hurtful disdain.  
 b. She herself interviewed with hurtful disdain the student I had turned down.

(Quirk 1985: 499)

예문 (2a)에서와 같이 영어에서 종속절의 문미에 부사어가 오는 경우에 이 위치가 주절의 문미이기도 하므로 부사어의 수식범위를 두고 중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부사어의 수식 관계가 명확한 (2b)와는 달리, (2a)에서 밑줄친 부사어의 피수식어는 “had turned down”과 “interviewed”가 전부 가능하다. 따라서 종속절이 문미에 오는 경우 주절의 부사어는 문미의 위치를 피하는 것이 좋다 (Quirk 1985: 499).

한국어의 부사어도 위치에 따라서 수식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성기철(1992: 127)에 수록된 예문을 소개한다. 성기철에 따르면 (3)에서 ‘어제’가 사용된 예문들은 전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면 부사어의 자리바꿈에 특별한 제약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 (3) a. 어제 영국에 유학을 갔던 초등학교 동창생이 미국을 경유해서 서울에 돌아왔다.  
 b. 영국에 유학을 갔던 초등학교 동창생이 어제 미국을 경유해서 서울에 돌아왔다.  
 c. 영국에 유학을 갔던 초등학교 동창생이 미국을 경유해서 어제 서울에 돌아왔다.  
 d. 영국에 유학을 갔던 초등학교 동창생이 미국을 경유해서 서울에 어제 돌아왔다.

(3a-d)에서 “어제”가 어느 위치에 있건 수식하는 대상은 모두 주절의 서술어인 “돌아왔다”이다. 그러나 예문(4)와 같이 내용을 약간 수정하면 부사어의 수식 범위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 (4) a. 일주일 전에 영국에 여행 갔던 남동생이 미국을 경유해서 서울에 돌아왔다.  
 b. 영국에 여행 갔던 남동생이 일주일 전에 미국을 경유해서 서울에 돌아왔다.  
 c. 영국에 여행 갔던 남동생이 미국을 경유해서 일주일 전에 서울에 돌아왔다.  
 d. 영국에 여행 갔던 남동생이 미국을 경유해서 서울에 일주일 전에 돌아왔다.

예문(4)에서 시간 부사어인 “일주일 전에”는 그 위치에 따라 (4a)에서는 피수식

어가 “여행 갔던”으로, (4b)에서는 “경유해서”로, (4c,d)에서는 “돌아왔다”로 이해된다. (4a)의 경우 문두에 사용된 부사어를 문장 부사로 보아서 주절의 서술어인 “돌아왔다”를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수식어는 피수식어의 바로 앞에 놓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구문 분석 과정에서는 인지적인 수고를 덜기 위해 가장 단순한 구조를 예측하면서 글을 읽어나가기 때문에 부사어는 가장 가까운 술어를 수식어로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4a)의 부사어는 “여행 갔던”과 호응을 이루게 읽힌다. 서술어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4)와 같은 내포문에서는 부사어의 위치에 따라서 그 수식 영역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3)에서 사용된 부사가 한 가지의 구조로 분석된 이유는 이 부사가 다른 서술어들과 적절한 의미관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국에 어제 유학을 갔다가 서울에 바로 돌아오는 일이 시간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식의 해석은 배제하는 셈이다. 결국 문장 내에서 위치가 자유로운 부사어라도, 인접한 어구와 잘못된 수식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내포문에서의 분포 위치는 두 언어에서 모두 제약이 따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몇몇 부사어는 그 의미 때문에 위치에 따라 의미차가 발생할 수 있다.

- (5) a. She really had delighted her audience.
- b. She had really delighted her audience.
- c. 광개토왕은 확실히 모든 적들을 무찔렀다.
- d. 광개토왕은 모든 적들을 확실히 무찔렀다.

(5a-b)의 경우를 보면, “really”가 서술어 앞에 오는 경우 문장의 명제가 참이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 서술어의 중간에 오는 경우 동사의 정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Quirk 1985: 498) (5c-d)에서, “확실히”가 목적어 앞에 놓이면 모든 적들을 무찌른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의미인 반면, 서술어 바로 앞에 오면 광개토왕이 적들을 무찌른 정도가 매우 확실하다는 의미이다(이승명 1986: 128).

부사어의 위치는 정보 흐름이나 주제 구조, 초점화 등 문장 화용론적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

- (6) a. On the table are two books.
- b. 테이블 위에 책이 두 권 있다.

예문 (6)의 존재문에서는, 두 언어 모두 장면이나 배경 설정의 역할을 하는 부사어가 문두에 오는 것이 기본 어순이다(임홍빈 2008: 88). 만약 이 때 부사어의 위치가 바뀐다면 초점을 받는 어구가 달라지므로 문장의 기능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번역시에 문두에 놓인 부사어의 위치는 가급적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어는 V와 O사이에 부사어가 끼어드는 일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목적어의 정보가 길고 중요한 경우 이를 강조하려는 문미초점(end-focus)의 경향으로 예문 (7)과 같이 예외적인 어순이 허용된다(Quirk 1985: 499).

- (7) She kept writing in feverish rage long, violent letters of complaint.

(7)에서는 중성분의 목적어가 부사어구 뒤에 오면서 목적어가 초점화되어 있다. 한국어는 서술어가 반드시 후치해야 하기 때문에 (7)의 효과를 그대로 살리는 번역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두 언어의 부사어는 각 언어의 어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자유로운 출현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부사어는 수식어인 만큼 피수식어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잘못 이해되는 위치에 있는 것을 꺼린다. 또한 주제 구조나 정보 구조, 초점화의 영향으로 위치가 조정되는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위치상의 제약이 따르거나 예외적인 위치가 인정되기도 한다.

### 2.3 영한 번역에서의 부사어 활용

이 논의를 위하여 두 언어의 구조적인 차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언어유형적인 분류는 어순 이외에도 의미가 구조화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동사에 포함된 의미 정보에 따라 영어는 위성형 언어(Satellite-framed language), 한국어는 동사형 언어(verb-framed language)로 나눌 수 있다(Talmy 1985). 위성형 언어인 영어는 동사에 포함된 의미 정보가 적어서 전치사나 명사구가 활



발하게 사용된다. 반면 동사형 언어인 한국어는 술어에 이동 양태나 경로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명사 중심 언어가 “형용사+명사”관계가 발달한 반면 한국어는 “부사+술어”와의 관계가 발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술어로 활용되며 명사도 ‘-이다’를 붙여 술어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부사어의 활용도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동일한 문법 범주라도 언어의 특성에 따라 쓰임에 차이를 보이므로 영어의 부사어와 한국어의 부사어가 일대일로 대응되기는 쉽지 않다.

영어의 부사어, 형용사, 명사구 등은 한국어로 전환할 때 부사어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어구들이다. 이 어구들 중에서 원문의 부사어가 부사어로 번역되는 것이 가장 수고가 적다는 점에서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어의 부사류가 발달하였다고 해도 영한 번역에서 원문의 부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예상보다는 그리 높지 않은 듯하다. 이미화와 박기성(20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ly’로 끝나는 부사가 번역될 때 원문의 품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절반 정도로 그리 높지는 않았고 나머지는 생략되거나 형용사, 동사 등으로 품사가 전환되어 나타났다. 또한 원문에서 부사의 위치가 문두인 경우에 그 위치와 품사가 지켜지는 정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것은 정보 구조적인 면에서 문두 위치가 차지하는 역할이 두 언어 모두 유사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영어 부사어의 한국어 번역 연구들은 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위치에 대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특히 문미에 오는 영어 부사어는 구조의 변경 없이 위치를 고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 흐름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된다. 조인정(2005)은 문미에 오는 원인·이유 부사어의 번역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부사어가 문미에 오는 구조는 한국어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번역할 때 원문의 정보 흐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술+이유·원인’의 기능이 있는 “~는 이유는 ~때문이다” 류의 구문을 활용하여 원문의 정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영어 부사어 이외에도 여러 성분들이 한국어 부사어로 전환된다. 우선 영어 형용사를 한국어 부사로 바꾸는 전략은 영한번역 지침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특히 명사구에 포함된 형용사인 경우에 부사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부사로 전환할 수 있는 형용사의 종류는 거의 무한대인 것으로 보이는데, 서계

인(2004: 214-5)은 일부 양화사(all, every)와 빈도 부사로 전환하기 쉬운 형용사(usual)등을 예로 들고 있고, 강주현(2002: 148-51)은 형용사에 ‘-게’를 붙이거나, 명사에 ‘-적으로’ 등의 후치사를 붙이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의 형용사는 용언류에 해당되므로 서술어에 더 가깝다. 따라서 부사 역할을 하는 다양한 접미사를 붙여 부사어를 만들기가 쉬워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명사구도 부사어로 바꿀 수 있다. 무생물이거나 추상의 의미를 가진 명사와 움직임의 의미가 내포된 타동사가 주술구조로 관계되는 무생물 주어 구문은 한국어의 언어 특성과 잘 맞지 않아 번역을 할 때 다른 구조로 전환하라는 전략이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영옥(2001)은 영어 무생물 주어 구문을 이루는 동사들을 사역동사, 감정동사, 사역의 의미를 가지는 타동사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동사들은 문장 내의 명사구들과 인과, 강제, 수여, 허용, 조건 등의 다양한 의미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번역문을 분석하여 영어의 타동사가 한국어로는 자동사나 형용사로 바뀌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또한 원문의 주어는 대체로 부사어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위 연구에 사용된 예문인 “Illness is forcing him to slow down”에서 주어는 어떤 행동의 원인이 되므로 “병 때문에 그는 쉴 수밖에 없다”로 구성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과적으로 사역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타동사와 대응되는 한국어 동사가 드물기 때문에 문장 구조의 변화가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간략하게 살펴본 부사어의 활용 양상은 자연스러운 영한 번역 텍스트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제시된 것들이다. 이렇듯 부사어가 한국어 규범에 맞게 사용되면 번역문의 가독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 2.4 영한 번역에서 나타나는 부사어 활용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한 번역에서 부사어의 활용 범위는 대단히 넓다고 할 수 있다. 부사어로서의 번역이 가지는 장점은 조어가 쉽고 위치가 자유롭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무생물 주어 번역의 경우, 주어의 자리에 있는 명사구를 부사구나 절로 바꾸기만 해도 정보 흐름의 왜곡 없이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를 낳는다. 또한 수식어와 피수식어와의 관계가 적절하게 이해되도록 수식어의 위치

를 정하는 일은 언뜻 간단해 보인다. 모국어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사어의 위치 선정 문제가 과연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할 만한 일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부사어 위치의 특성 때문에 오히려 번역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부사는 여러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부사의 피수식어는 가장 나중에 등장하므로 구조 예측성이 적다.

(8) ST: HOW A DUMB ACCIDENT CAN CHANGE YOUR LIFE.

(Oates: 58)

TT1: ‘얼마나 멍청한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가.’ (최인자 1996: 71)

TT2: 엉뚱한 사고가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공경희 2012: 88)

(8)의 ST는 두 벌의 번역본이 있다. ST에 제시된 문장은 해당 장의 표제어로서 매우 단순한 구조에 속하는 데도 각각의 TT는 그 구성이 다르다. ST의 의문부사인 “how”가 각각 “얼마나”와 “어떻게”로 옮겨져 있는데, 여기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단어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그 출현 위치이다. TT1에서는 ST의 의문부사 위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얼마나”가 “멍청한”을 수식하는 것처럼 읽힌다. 반면 TT2에서는 “어떻게”가 피수식어의 바로 앞자리로 옮겨지면서 ST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된다. 이 TT들만 두고 보면 TT1 번역의 전반적인 품질에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살폈을 때 TT1의 번역자는 까다로운 구문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솜씨가 있었으며 TT2의 번역본에서도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오류가 나오기도 했다. TT1의 번역가의 경력과 능력을 고려할 때 부사어의 어순과 같은 사항은 사소하게 취급되어 별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문제인 것 같다. 게다가 부사의 특성상 “얼마나”가 “바뀌는가”를 수식하는 구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ST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번역가의 입장에서는 수상한 점을 감지하지 못하는 결과도 생긴다. 부사어의 조성파 출현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사실이 번역자에게 유용한 수단이 되는 점은 분명하지만 부사어의 위치에 제약도 따른다는 사실은 흔히 간과되므로 불필요한 실수로 연결된다.

서계인(2004: 151)에서는 예문(9)를 통해 어순 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9) ST: He had lost over five hundred dollars, almost all the money he had earned, at the crap tables in the last two weeks.

TT1: 그는 지난 2주일 사이에 크랩 노름을 하다가 번 돈의 거의 전부인 5백 달러 이상을 잃었다.

TT2: 그는 지난 2주일 사이에 크랩 노름을 하다가, 번 돈의 거의 전부인 5백 달러 이상을 잃었다.

TT3: 그는 번 돈의 거의 전부인 5백 달러 이상을 지난 2주일 동안 크랩 노름판에서 잃어버렸다.

서계인은 (9)에서 TT1이 어순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문제의 부사어 “크랩 노름을 하다가”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서술어 “번”을 수식하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TT2나 TT3처럼 두 어구가 서로 엮이지 않게 삽표를 이용하거나 어순을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ST를 TT1처럼 번역하기가 쉬운 이유는 두 언어 어순의 대칭성으로 인해 원문의 어구들을 정반대로 배치하려 하기 때문이다. ST의 서술어구 내의 순서는 “over five hundred dollars - almost all the money - he had earned - at the crap tables - in the last two weeks”인데 TT1에서는 이 순서가 정확하게 바뀌어서 “지난 2주일 사이에 - 크랩 노름을 하다가 - 번 돈의 - 거의 전부인 - 5백 달러 이상을”이 되었다. ST가 단문인 경우에 주어를 번역한 후 문장의 끝부터 순서대로 옮기면 대개 어순 구성이 맞고, 이 구성 자체가 문법적으로 잘못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원래의 번역가는 TT1과 같은 어순에 잠재된 구문 분석 오류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한국어 번역문에서의 부사어 위치는 원문의 물리적인 위치가 수동적으로 반영되어서 결정되는 일도 있다.

(10) ST: Landon occasionally ribbed Peter that the lone tarnish on his sterling pedigree was his diploma from a second-rate university - Yale. (Brown 2009: 14)

TT: 랭던은 이따금 그의 화려한 이력 가운데 유일한 오점은 이류 대

학을 나왔다는 사실이라고 그를 놀리곤 했다. 피터는 예일 출신이었다. (안중철 2009: 31)

예문 (10)의 ST에서 “occasionally - ribbed”의 관계는 TT에서 “이따금 - 놀리곤 했다”의 관계로 번역되어 있다. 이 예문은 원래 이미화와 박기성(2011)이 부사의 위치 변화 양상을 조사하면서 발췌한 것으로, 이들은 이 예문을 통해 원문에서 문중에 위치한 부사는 번역문에서도 문중에 위치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10)의 TT가 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수식어는 피수식어의 가장 앞에 놓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따금”은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라서 [목적어+서술어]의 바로 앞에 놓이는 구성이 자연스럽고, 목적어에 내포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순서가 목적어 뒤로 바뀌는 일도 있다<sup>2)</sup>. 즉 수식어가 피수식어와 거리가 멀어지면 심리적으로도 맞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물론 구문 분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 커진다. 따라서 TT의 “이따금”은 “그를 놀리곤 했다”의 바로 앞에 놓이는 것이 더 적절한 위치이다.

이렇게 부사어와 서술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을 피하는 경향은 쉽게 발견된다. (11)의 예문은 포털사이트(다음과 네이버)의 국어사전 예문들 중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 (11) a. 묵묵히 듣고 앉았던 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 b. 그는 온몸에 힘을 빼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 자신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생각했다.
- c. 이문달이 저편 운동장 끝 줄줄이 늘어선 플라타너스 나무 밑을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2)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의 국어사전에서 “이따금”의 예문을 검색해보면 목적어가 있는 서술어의 경우 (1)과 같이 목적어 앞에 부사가 위치한다. 그러나 (2-3)처럼 긴 목적어가 있으면 그 뒤에 “이따금”이 위치함을 알 수 있다.

- (1) 두 사람은 말이 없이 담배를 피우면서 이따금 담배 연기를 한숨과 함께 내뿜었다 (한용운: 흑풍)
- (2) 그 뒤 두어 달 나는 틈나는 대로 이번 수상이 내 문학에 가지는 의미를 이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이문열: 시대와의 불화).
- (3) 요즈음도 회교 국가들에서는 절도범의 손목을 잘라 버리는 신체형을 가한다는 보도를 이따금 접한다.

(11a-c)에서 사용된 부사 “천천히”는 동사의 모양을 수식하는 부사이며<sup>3)</sup> 목적어가 있을 때에는 (11a)와 같이 목적어 앞에 오는 일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목적어가 길거나 다른 부사어가 있을 때는 (11b,c)처럼 서술어의 바로 앞에 오는 쓰임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11b)에서 “천천히”를 목적어 앞으로 옮겨 “... 천천히 자신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라고 써도 문장의 의미는 동일하다. 부사어 위치의 변화가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때 특정한 위치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중성분 선치 현상”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중성분이란 구조가 복잡하고 긴 성분인데 이런 성분이 “동일 층위의 다른 성분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성기철 1992: 113). 예를 들면 명사구 내에서 나타나는 관형어들은 길이가 짧은 것이 명사와 더 가깝게 나타난다. 길이가 짧고 구조가 단순한 경성분의 수식어가 피수식어와 거리가 멀어지면 구문 분석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더 커질 수 있다. (11a)에서는 부사어가 목적어의 앞에 나오는데, 목적어가 서술어의 필수 성분이므로 서술어와 더 가깝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11b,c)에서는 목적어나 다른 부사어 등 서술어 구와 관련된 다른 중성분의 어구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는 이 성분들의 뒤에, 즉 서술어 바로 앞에 오게 된다. 그러나 (11b,c)에 서술어의 양태를 강조하려는 담화 기능 때문에 “천천히”의 위치가 서술어 바로 앞에 오게 된 것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 화자의 특수한 담화상의 의도가 부사어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사의 위치는 다른 어구들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영한 번역에서 부사어가 구성될 때 (12)와 같은 어순이 나타나는 경우 구문 분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12) Adv1 + V2 + V1

3) “천천히”는 위치에 따라서 문장의 진리치가 달라질 수 있는 부사임이 이승명(1986: 128)에 설명되어 있다. 임유중(1997: 103)은 “천천히”가 양태소 호응 부사와 동사 수식 부사로 쓰임이 나뉘다면서, 양태소 호응 부사일 때는 문두에 올 수 있는 반면 동사 수식 부사일 때는 문두에 오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는 동사 수식 부사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천천히”의 위치 변화(목적어의 앞, 뒤)는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에서는 부사어를 Adv, 서술어를 V로 표시했다. 숫자가 같으면 같은 층위에 있는 어구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Adv1은 V1을 수식하며 그 사이에 있는 V2는 기타 부사절이나 관형절 등 내포절의 서술어에 해당한다. 영한 번역문은 (9)와 같이 어순이 대칭적으로 재구성되거나, (10)의 TT와 같이 원문의 위치가 수동적으로 반영되는 까닭에 (12)의 순서로 구성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Adv1과 V1 사이에 V2가 삽입되어 있으면 (9)의 TT1처럼 구조적 중의성으로 인한 구문 분석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10)의 TT처럼 다소 어색한 문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다음 장에서는 (12)과 같은 유형이 나타나는 번역문을 중심으로 문제를 살펴보고 번역 전략을 제시한다.

### 3. 영한 번역문에서 부사어의 위치와 구문 분석의 문제

영한 번역문에서 나타나는 “Adv1+V2+V1” 유형은 구문 분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는 “[Adv1+V2]+V1”처럼 읽히는 것인데, Adv1이 V2를 수식하는 것처럼 구문 분석하게 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Adv1+[V2]+V1”처럼 읽히는 것으로, 구문 분석은 올바르게 되지만 어색하게 여겨지는 경우이다. 셋째는 Adv1의 피수식어가 V2인지 V1인지 문장을 읽어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이다. 각각의 구문 분석 유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번역 전략을 제시한다.

#### 3.1 부사어의 구조적 중의성

Adv1과 V2가 같은 층위에 있는 어구인 듯 해석되는 문제는 구조적 중의성 중에서도 길혼동 현상(garden-path)이라 부를 수 있다. 길혼동 현상이란 우연히 인접하게 된 두 어구가 통사적, 의미적인 결속성이 강하여 서로 관련이 있는 구조인 것처럼 잠시 착각하는 현상을 말한다(조명한 2004: 182). 한국어는 핵어가 후치하는 언어유형적인 특성상 국지적인 중의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원은하(2012)가 “주어부재형 안긴 절” 유형을 통해 영한 번역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길혼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문 분석의 원리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문 분석은 즉시성의 원리와 최소 부

작의 원리(minimal attachment)가 적용되어 이루어진다(조명한 2004: 182). 즉 인간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어들이 입력되면 문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미리 판단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예측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 복잡한 구조를 예측하기 보다는 가급적 단순한 구조로 구문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Adv1+V2+V1”의 구문에서 인지상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구문 분석 경향 때문에 Adv1의 바로 뒤에 등장한 V2가 진짜 피수식어인 것처럼 구문 분석하게 될 위험이 있다.

(13) ST: Today in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some supermarket chains give customers a handheld gadget that scans each can or box they choose and charges it to their credit card. (Toffler 2006: 170)

TT: 오늘날 미국과 다른 여러 지역의 슈퍼마켓 체인에 가면 소비자에게 휴대용 소형 기기를 통하여 구입하려는 통조림이나 상자를 스캔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다. (김중웅 2006: 251-2)

예문 (13)에서 번역가는 크게 두 종류의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첫째, ST의 주절-관계절의 어순을 TT에서도 유지시키고 둘째, 명사구 “a handheld gadget”을 부사어 “휴대용 소형 기기를 통하여”로 전환하였다. “that scans ...”로 시작되는 관계절의 구조를 그대로 옮기면 수식어 구성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점을 우려한 결과이다. 관계절의 선행사를 TT에서 부사어로 바꾼 것은 ST의 관계절 위치를 TT에서도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TT는 읽는 과정에서 길 혼동 현상을 겪는다. 관계절의 선행사가 “휴대용 소형 기기를 통하여”로 바뀌었는데, 이 어구가 바로 뒤에 나온 관계절의 서술어 “구입하려는”을 수식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 TT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읽는 속도를 늦추고 어구들과의 의미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지게 된다.

예문(13)의 TT를 읽을 때 겪는 구문 분석 과정은 다음 (14)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14) a. [Adv1 + V2] + V1 (×) → b. Adv1 + [V2] + V1 (○)

(14)에서, 부사어 Adv1은 상위절의 서술어인 V1을 수식한다. 수식어는 핵어의 왼편에만 오면 될 뿐이므로 관형어 수식어 역할을 하는 V2의 왼편에 올 수 있다. 따라서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즉시성의 원리나 최소 부착의 원리의 영향으로 인하여 Adv1 뒤에 서술어가 바로 등장하면 의미 관계가 상충하기 않는 한 (14a)와 같은 방식으로 구문 분석을 한다. 가장 단순한 구성이기 때문이다. Adv1이 V2와 직접적인 수식-피수식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때는 실제의 피수식어인 V1을 접할 때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장을 끝까지 읽어도 (14b)로 읽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무생물 주어의 부사절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14a)의 구조로 읽히는 경우가 있다.

(15) ST: Tighter and much more expensive credit raises the cost of outstanding debt. (Botton 2006: 96)

TT: 비싸고 얻기도 힘든 신용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부채 비용은 증가한다. (정영목 2004: 136)

예문 (15)의 ST와 같이 무생물 주어 뒤에 타동사가 오면 주어부와 서술부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는 인과 관계를 부사어로 나타내는 일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무생물 주어의 부사어로 전환하는 전략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TT도 역시 그러한 번역 과정이 적용된 예이다. 따라서 밑줄 표기한 ST의 주어는 TT에서 “비싸고 얻기도 힘든 신용 때문에”라는 부사어로 구성되고, 뒤이어 “해결하지 못한 부채 비용은”이라는 새로운 주어가 나온다. ST의 “outstanding”은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위치한 형용사로 수식 범위가 명확하다. 반면 TT에서는 명사구의 첫머리에 “해결하지 못한”으로 번역되면서 주어가 없는 관계절의 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문두에 생성된 부사어는 관계절의 서술어와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 그 결과 아직 갚지 못한 빚이 “비싸고 얻기도 힘든 신용 때문에” 더 불어난다는 내용이 “비싸고 얻기도 힘든

“신용 때문에” 빛이 생긴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 어휘 의미상 “신용 때문에 부채 비용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통사 구조상의 결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역시 제대로 이해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형용사+명사 구문이 부사+서술어화될 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6) ST: Sometimes we thought of death, for there were constant admonishments not to climb the pylons, (Botton 2009: 204)

TT: 가끔 우리는 죽음을 생각했다. 늘 첩탐에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문과 만났기 때문이다. (정영목 2009: 226)

예문(16)의 ST에서, for 이하의 there 구문이 번역된 양상을 살펴볼 텐데, ST에서 명사구였던 구조가 TT에서는 부사와 서술어로 구성되었다. 특히 어구의 위치 변화를 살펴보면, ST에서 ‘형용사+명사+부정사’의 어순으로 구성되었던 명사구는 TT에서 ‘부사+관형절+보어+서술어’로 바뀌었다. “constant admonishments”를 “늘 ... 경고문과 만났기”로 풀어냈고, “not to climb the pylons”를 “첩탐에 올라가지 말라는”으로 옮겼다. 그런데 이 관형절은 ST에서와는 달리 피수식어의 왼편에만 올 수 있으므로 “늘”과 “경고문과” 사이에 오게 되면서 TT에서는 “늘”과 “첩탐에 올라가지 말라는”이 연속하여 나타나는 어순이 되었다. “늘”이라는 부사는 문장에서 위치가 자유로운 편이고 원문의 단어인 “constant”가 명사구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늘”이 “첩탐에 올라가지 말라는” 보다 선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결과 “Adj1 + V2 + V1”의 어순이 형성되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어순에서는 의미 관계나 맥락 등의 다른 변수가 없는 경우 “[Adj1 + V2]”인 것처럼 구문 분석이 된다. 따라서 “늘 첩탐에 올라가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오독할 여지가 있다. 이 때 Adj1과 V2의 어휘 의미 관계가 서로 어울리고 맥락상으로도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까닭에 ST에서 의도한 대로 구문 분석이 이루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3)과 (15)의 TT에 나타난 부사어는 ST의 목적어나 주어가 바뀐 것인데, 이 어구들을 부사어로 처리하는 장점 중의 하나는 ST에서 구성되었던 정보 흐름의 순서를 가급적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13)에서 “휴대용 소형 기기를 통하여”의 위치는 ST에서 차지하던 선행사의 위치와 별 다르지 않다. (15)에서

는 부사어가 문두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문장 구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사어들 바로 뒤에 내포절의 서술어구가 위치하게 되면서 길 혼동 현상이 발생한다.

### 3.2 번역 전략

“Adv1+V2+V1”의 어순이 나오는 유형에서 길혼동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Adv1을 V1에 가깝게 위치를 옮겨 “V2+Adv1+V1”의 순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3)과 (16)의 TT에서 다음과 같이 Adv1의 위치를 바꾸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17) TT1: 오늘날 미국과 다른 여러 지역의 슈퍼마켓 체인에 가면 소비자에게 휴대용 소형 기기를 통하여 구입하려는 통조림이나 상자를 스캔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다. (김중웅 2006: 251-2)

TT2: 오늘날 미국과 다른 여러 지역의 슈퍼마켓 체인에 가면 소비자가 구입하려는 통조림이나 상자를 휴대용 소형기기로 스캔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다. (필자 번역)

(18) TT1: 가끔 우리는 죽음을 생각했다. 늘 철탑에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문과 만났기 때문이다. (정영목 2009: 226)

TT2: 가끔 우리는 죽음을 생각했다. 철탑에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문과 늘 만났기 때문이다. (필자 번역)

(17)의 TT1에서 문제의 부사어를 TT2에서와 같이 호응하는 서술어 바로 앞에 두면 “휴대용 소형 기기를 통하여 구입하려는”의 어순이 사라지므로 부적절한 의미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사라진다.<sup>4)</sup> 또한 (18)의 경우도 “늘”의 위치를 해당

4) 여기에서는 어순의 재구성만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의 여부만을 보여준다. 그러나 (13)의 ST는 아래와 같이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1) 오늘날 미국과 다른 나라의 일부 슈퍼마켓 체인점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골라 직접 스캔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를 제공한다. (2) 오늘날 미국 및 다른 나라의 일부 슈퍼마켓 체인점에서는 소비자에게 휴대용 장치를 제공하는데, 소비자들은 이 장치를 이용하여 구매할 제품을 직접 스캔하고 카드 결제도 할 수 있다.

서술어의 바로 앞으로 옮겨주어서 보다 자연스럽게 읽힌다.

한편 부사어가 문두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부사어의 위치를 바꾸는 데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문두에 오는 정보는 주제화나 배경 제시 등의 특정한 담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15)의 TT는 어순을 바꾸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19) TT1: 비싸고 얻기도 힘든 신용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부채 비용은 증가한다. (정영목 2004: 136)  
 TT2: 해결하지 못한 부채 비용은 비싸고 얻기도 힘든 신용 때문에 증가한다. (필자 번역)  
 TT3: 비싸고 얻기도 힘든 신용 때문에 값아야 할 부채 비용은 증가한다. (필자 번역)

(15)의 TT는 (19)의 TT1이고 TT2와 3은 필자의 대안 번역이다. TT2는 어순 바꾸기 전략이 적용된 예이고, TT3은 어구의 의미를 바꾸어준 경우이다. 길 혼동 현상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TT2의 번역 전략에 문제는 없지만 문두의 위치를 바꾸는 행위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TT3에서와 같이 “해결하지 못한”이라는 부분을 “값아야 할”로 바꾸어주었다. 그런 경우 “...신용 때문에”와의 의미 관계의 단절성이 TT1보다 부각되므로 구문 해석 과정에서의 인지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될 수 있다.

문두의 부사어 위치를 유지하여야 할 때 간단하게 문장 부호의 사용을 고려할 만하다.

- (20) ST: In addition to these cases, which are parts of whole metaphorical systems, there are idiosyncratic metaphorical expressions that stand alone and are not used systematically in our language or thought. (Lakoff 1980: 54)  
 TT1: 전체 은유 체계의 부분인 이 경우에 덧붙여 고립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언어나 사고 속에서 체계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특이한 은유적 표현들이 있다. (노양진과 나익주 2006: 122)  
 TT2: 전체 은유 체계의 부분인 이 경우에 덧붙여, 고립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언어나 사고 속에서 체계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특이한

은유적 표현들이 있다. (필자 번역)

ST에서 “In addition to...”는 “...에 더하여/덧붙여” 등으로 전환되는 표현인데, TT1에서는 이 구문을 “전체 은유 체계의 부분인 이 경우에 덧붙여”로 바꾸었다. 그런데 뒤이어 “고립되어 있으면서”가 등장하면서 이 부사어의 수식 범위가 마치 “고립되어 있으면서”에 한정되는 것처럼 읽힌다. 이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TT1과 같은 어순 구성은 곤란하다. 게다가 주어 수식하는 관형절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이 어구를 명사로 전환하는 데도 무리가 따르므로 TT2와 같이 문두의 부사어 뒤에 쉼표를 두어 길 혼동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상책이다. 쉼표를 사용하는 전략도 만능은 아니어서, (19)의 TT1과 같이 문장 길이가 짧을 때 사용하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다. 만약 “비싸고 얻기도 힘든 신용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부채 비용은 증가한다”로 쓴다면 쉼표의 표현적 기능이 강조되어 ST에서는 없었던 어조가 부여될 수도 있다.

영한 번역시 “Adv1+V2+V1”의 어순으로 구성되는 TT에서 길혼동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21) Adv1+V2+V1 → a. V2 + Adv1 + V1  
 b. Adv1 + V3 + V1  
 c. Adv1 + , + V2 + V1

(21)에서 Adv1과 V2가 짝을 이루는 듯이 해석되는 경우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우선 (21a)처럼 Adv1을 V1 바로 앞에 오게 하여 수식-피수식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한다. 그러나 Adv1이 문두에 오는 경우에는 (21b)처럼 Adv1 바로 뒤에 오는 V2의 통사 구조나 의미를 조정하여 두 어구 사이의 단절성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 한편 V2 자리에 오는 어구가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Adv1 뒤에 쉼표를 사용하여 잘못된 수식 관계를 차단할 수 있다. 문장에 사용된 어구들의 의미나 길이 등 여러 요건을 따져보아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

#### 4. 결론

한국어는 부사어가 발달되어 있어 영한 번역에서 다양한 구조가 부사어로 번역된다. 부사어는 조어가 쉽고 위치가 자유로운 편이라서 자연스러운 번역문을 생산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영어 원문을 번역할 때 어순이 정반대로 구성되는 경향, 그리고 한국어 수식어의 위치 제약, 원문 어순의 간섭이라는 요소들로 인해 “Adv1+V2+V1”의 순서로 구성되는 구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는 피수식어의 등장이 늦어지면서 부사어의 구문 예측성이 낮아져 길 혼동 현상이 발생한다. 내포절의 서술어인 V2가 부사어 Adv1과 서로 호응을 이루는 것처럼 잠시라도 착각하게 되면 글의 이해 속도가 저하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본문에서는 어순 변경, 의미 조정, 삽표 사용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부사어 구성의 문제는 소홀하게 여겨지는 까닭에 실수하기가 쉬운 구문이므로 부사어 구성에 따르는 어순상의 제약을 번역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사어의 연구가 구문 분석 상의 중의성의 문제에만 국한되어서 연구의 폭이 좁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부사어의 구문 분석 문제는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주현 (2002) 『강주현의 영어번역 테크닉』, 서울: 국일미디어.  
 서계인 (2004) 『실전 영어 번역의 기술』, 서울: 북라인.  
 서정수 (2006) 『국어 문법』, 서울: 한세본.  
 성기철 (1992) 「국어 어순 연구」, 『한글』 218: 77-114.  
 송경안과 이기갑 외 (2008) 『언어 유형론 I』, 서울: 월인.  
 원은하 (2012) 「영한 번역에서 구조적 중의성의 처리 전략」, 『번역학연구』 13(1): 87-114.  
 이미화와 박기성 (2011) 「영어 -ly부사 위치와 의미의 영한번역 과정 상관성 연구」, 『언어과학』 18(2): 109-32.

- 이영옥 (2001) 「무생물 주어 타동사 구문의 영한번역」, 『번역학연구』 2(1): 53-77.
- 이승명 (1986) 「부사(어)의 위치와 의미 영역에 대한 연구」, 『수련어문논집』 13: 115-31.
- 임유중 (1997) 『국어 부사의 범주 정립과 호응 및 어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홍빈 (2007) 「어순에 관한 언어 유형적 접근과 한국어의 기본 어순」, 『서강인문논총』 22: 53-120.
- 조명환 (2004) 『언어심리학』, 서울: 학지사.
- 조인정 (2005) 「영한 번역의 어순 문제: 이유·원인의 부사절」, 『이중언어학』 28: 355-69.
- Quirk et al.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Y: Longman.
- Talmy, Leonard (1985) Lexicalization Patterns: Semantic Structure in Lexical Forms.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III: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Cambridge: Cambridge UP, 57-149.

#### <분석자료>

- Botton, Alain de (2006) *Status Anxiety*, New York: Knopf. (정영목 옮김 (2004) 『불안』, 서울: 은행나무.)
- (2009) *The Pleasures and Sorrows of Work*, New York: Penguin. (정영목 옮김 (2009) 『일의 기쁨과 슬픔』, 서울: 이레.)
- Brown, Dan (2009) *Lost Symbol*, New York: Doubleday. (안종설 옮김 (2009) 『로스트 심벌』, 파주: 문학수첩.)
- Lakoff, George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 of Chicago P. (노양진과 나익주 옮김 (2006)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 Oates, Joyce Carol (2009) *Zombie*, New York: Ecco. (최인자 옮김 (1996) 『좀

비』, 서울: 버팀목. 공경희 옮김 (2012) 『좀비』, 파주: 문학동네.)

Toffler, Alvin and Heidi Toffler (2006) *Revolutionary Wealth*, New York:

Knopf. (김중웅 옮김 (2006) 『부의미래』, 서울: 청림출판.)



[Abstract]

**Adverbial Position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Strategies for Avoiding Structural Ambiguity**

Won, Eunha  
(Singu College)

This paper examines adverbial position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Korean adverbials are known to be abundant, easy to generate, and positioned relatively freely. Many adjectives, noun phrases, and prepositional phrases as well as adverbial phrases in source texts can be converted into adverbials without much effort and the results are usually satisfactory. But the opposite word order of translated sentences and more strict position of Korean modifiers often produce “Adv1+V2+V1”-type word order. It obstructs appropriate phrase parsing, for Adv1 and V2 are closer than Adv and V1 are. It is possible to misread the structure as Adv1 modifies V2.

In order to avoid misunderstanding this structure, three strategies are proposed: to rearrange word orders, putting Adv1 between V2 and V1, to adjust syntactic structure, changing V2 into a noun phrase, and to add comma after Adv1. These approaches break the wrong connection between Adv1 and V2 and help parse translated sentences correctly and effectively.

▶ Key Words: adverbials, English-Korean translation, structural ambiguity, garden-path, word order

108 번역학연구 ● 제13권 5호

원은하

신구대학 실무회계학과 강사

boi999@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학

논문투고일: 2012년 11월 2일

심사완료일: 2012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4일